

살아있음이 감사해요

글_이칠용

“오늘도 열심히 땀흘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행이 올해부터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자활도 하는 덕분에 불편한 몸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곳이 있어 나름대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생활이 자꾸 기뻐지고 감사해 집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사 램이 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들을 처리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몸이라도 아프게 되면 경제적인 것이나 생활적인 면 이것저것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아픈은 그 한 가지보다 더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감기인줄 알았는데

벌써 4년 전 일 이네요. 1998년 처음엔 단순히 감기인줄 알고 감기 약을 사 먹기 시작한 것이 몇 달이 되어도 도무지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몸은 자꾸만 지쳐가서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결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난 결핵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면서 며칠을 입원했지만 곧 경제적 어려움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홀로 병상의 삶을 시작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혼자만의 생활로 안정적 치료가 될 수 없었고 점차적으로 몸은 더욱 약해져만 갔고 결국엔 안타깝게 생각하는 주위 분의 권유로 순천 결핵 재활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치료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는지 얼마 후 각혈을 하게 되었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이 간절히 메달린 곳은 바로 신앙이 있었습니다. 새벽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시작한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점차 몸은 좋아지고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료하기 시작한 것이 2년의 세월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바르게 치료를 시

작했다라면 조금 더 일찍 병을 끝내고 좀더 나은 삶을 이루었을 것인데 혼자 고집스럽게 지내며 이미 몸이 많이 상해진 상태라 치료의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소에서 꾸준히 치료를 한 덕분에 2년의 세월이 지난 후 병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치료 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게 더 큰 고민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야 할 삶. 그리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내 삶에서 결핵으로 인해 활동성을 많이 상실한 몸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회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보양원으로

결국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가야 할 삶을 선택하기보단 안정적 삶을 위하여 지금의 보양원의 삶을 선택하고 2000년 1월 1일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같이 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림의 떡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스스로가 책

임을 지기엔 어려운 여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힘들어 주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결핵만성으로 활동성을 상실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어려움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은 것을...

보양원으로 옮겨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새벽 3시경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려 하는데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아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택시를 불러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결과는 중풍이었습니다. 몸의 한쪽이 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완전히 반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린 내 상황, 그것은 사실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결핵에서 겨우 어렵게 해방되었는데 그것도 2년의 세월을 보내서 어렵게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중풍으로 쓰러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슬프던지...

더욱이 아파 힘들어해도 누구하나 수발을 들어줄 보호자도 없는 내 상황에서 한쪽의 마비란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생활하는 보양원 식구들의 도움과 빨리 발견해서 시작한 빠른 치료 덕분에 3개월 정도 지나 조금씩 마비가 풀리면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몸의 불편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스로 움직일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기에 그나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땀 흘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힘든 것은 오랜 시간 치료를 하고 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에 홀로 던져져야 한다는 그 막막한 두려움은 아마 나뿐만 아니라 결핵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공감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또한 퇴원을 해야 할 그때에 그 문제로 인해 심히도 마음 고생을 하고 어렵게 이곳 생활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 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결핵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나서 마땅히 상처 입은 몸으로 갈 곳도 없어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돌보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다시 국립병원으로 아니면 요양소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한 쪽 팔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땀흘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행이 올해부터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자활도 하는 덕분에 불편한 몸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곳이 있어 나름대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생활이 자꾸 기뻐지고 감사해 집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사람들처럼 사회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나의 삶을 살찌우고 사는 날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행복의 마음을 오늘도 이곳 저 곳을 방황하며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모든 환우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끄러운 내 인생의 글을 씁니다. [✱]

‘결핵환자의 나들이’는 결핵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달에 이어 전남순천보양원 식구들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결핵을 앓으셨거나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립니다.